

금 75%·은 25%...디자이너 7명 40시간 수작업

스위스 쇼파드 디자이너를 참여 18cm 줄기·19개 잎 주조 후 조립 황금종려상 트로피 봉감독이 소유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제 72회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품에 안으면서 그 트로피에 대한 호기심이 일고 있다. 공정 과정 등에 대한 궁금증이다.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Palme d'Or)은 경정부문 초청작 가운데 최고 작품과 그 감독에게 주는 상.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인 칸에 흔한 아열대식물 종려나무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트로피의 문양도 그 잎사귀의 형상을 본떠 만들었다.

● 누가 디자인하나?

트로피 제작에는 스위스 보석 브랜드 쇼파드에 소속된 7명의 디자이너가 참여한다. 트로피를 구성하는 18cm의 줄기와 19개의 잎 문양은 하나씩 주조한 후 조립한다. 재질은 금 75%, 은 25%로 구성된다. 받침대인 크리스털은 3kg의 원석을 연마해 완성한다. 모든 재료는 공정 거래 인증을 받은 곳에서만 받는다.

디자이너들이 40시간에 걸쳐 수작업



으로 완성한 트로피는 비밀리에 보관돼 영화제 폐막식 몇 시간 전 식당인 칸 팔레 데 페스티발의 대극장 루미에르로 옮겨져 마침내 수상자의 품에 안긴다.

● 그 역사는?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은 1954년 말 제정됐다. 이전까지는 '국제영화제 그랑프리'로, 당시 유행한 아티스트의 예술작품을 부상으로 수여했다. 첫 황금종려상 주인공은 1955년 제8회 때 텔버트 만 감독과 영화 '마티(Marty)'였다.

이후 1975년부터 '황금종려상'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초의 트로피는 당시 유명한 보석세공사 루시엔 라종이 디자인했다. 종려나무의 잎과 줄기 아래 끝 쪽이 하트 모양을 이루는 형태였다. 받침대는 조각가 세바스티앙이 조각했다. 1980년대 초에는 받침대를 둥근 모양으로 만들었다. 1984년 피라미드 형태로 바꿨다.

1992년부터 티에리 드 부르크네가 디자인해 손수 깎은 크리스털 소재 받침대를 사용했다. 이후 1998년 쇼파드의 캐

롤라인 슈펠레가 수정한 디자인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7년에는 70회 영화제를 기념해 다이아몬드를 잎과 줄기에 별 모양으로 박아넣은 새 디자인을 특별 제작해 화제가 됐다.

● 수상 트로피는 누가 보관하나?

황금종려상은 최고 작품과 연출자인 감독에게 주는 것이니만큼 이번 영화제 황금종려상 트로피는 봉준호 감독이 소유한다. 제작사 바른손이엔에이의 한 관계자는 "당연히 봉 감독이 갖는다"면서 "영화제가 트로피와 별도로 수여하는 상장이 있다. 이를 실제와 똑같이 만들어 배우와 스태프 등과 함께 나누어 가질 계획이다"고 말했다. 과거 칸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각 영화의 관계자들 역시 실제 상장을 그대로 모사한 기념품을 만들어 상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이번 황금종려상 트로피를 칸에서부터 서울까지 운반한 책임자는 누구였을까. '기생충'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 직원이다. 이 직원은 '안전운반'의 임무를 받고 다른 업무에서 열외돼 오직 트로피만 챙겼다. 봉 감독은 "저나 송강호 선배가 잘 간수하지 못해 아주 잘 하는 분이 맡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4

학폭 논란 잔나비 스케줄 줄줄이 취소



잔나비

과거 학교폭력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밴드 잔나비의 스케줄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이들은 28일 KBS 쿨FM '이수지의 가요광장', 29일 SBS 파워FM '정소민의 영스트리트'에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제작진 측이 모두 취소했다. 앞서 잔나비는 멤버 유영현이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사실과 보컬 최정훈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항응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부친의 기업 경영에 참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에반 피터스, 기자 간담회 이탈 논란



에반 피터스

할리우드 배우 에반 피터스가 영화 '엑스맨: 다크피닉스'의 내한 기자간담회에서 자리를 이탈해 논란을 빚었다. 에반 피터스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 호텔에서 진행된 간담회에 배우 마이클 패스벤더, 소피 터너 등과 함께 참석했다. 하지만 행사 도중 자리를 빠져나간 후 돌아오지 않아 "무례하다"라는 지적을 받았다. 진행자 류시현은 행사가 끝난 후 "에반 피터스가 컨디션 난조로 기자회견을 마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4인조 FT아일랜드 첫 단독콘서트



FT아일랜드

그룹 FT아일랜드가 '물카파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 멤버 최종훈이 탈퇴한 후 처음으로 국내 무대에 오른다. 27일 FNC엔터테인먼트는 "FT아일랜드가 6월29일, 30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단독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팀을 탈퇴한 최종훈은 2016년 강원 홍천, 대구에서 스마트폰 메시지 대화방에 소속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지난달 10일 구속됐다. 이후 FT아일랜드는 4인조로 개편했다.

BTS '마이크 드롭' 뮤비 조회수 5억



방탄소년단

그룹 방탄소년단의 노래 '마이크 드롭'의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5억 건을 넘어섰다.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유튜브에 2017년 11월 공개된 뮤직비디오는 27일 오전 2시 26분께 5억 뷰를 넘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조회수 7억 건을 돌파한 '디엔에이'를 비롯해 '불타오르네' '페이크 러브' 등까지 총 4편의 5억 조회수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게 됐다. 방탄소년단은 최근 월드 투어 '러브 유어셀프: 스피크 유어셀프'로 전 세계 팬을 만나고 있다.

또 다른 피해자 폭로...효린 '학폭' 논란 확산

"가방·옷·신발 며칠씩 뺏겨 이유없이 폭행당해야 했다" 소속사 "명예훼손 고소 방침"

과거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걸그룹 씨스타 출신 효린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소속사 측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강경 대응할 뜻을 밝혔지만 27일 추가 피해자라 주장하는 누리꾼이 등장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15년 전인 중학생 시절 3년 동안 효린에게 끊임없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후 돌연 관련 글을 삭제해 관심을 모았던 A

씨가 이날 오전 "기사 나오고 몇 시간 뒤 효린에게 SNS 메시지로 답장이 왔다. 이후 내 IP(주소)를 차단시켰다"며 삭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효린)만나자고 하더니 연락 없이 고소하겠다는 입장으로 바꿨다"면서 또 다른 피해자와 나는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은 효린에게 옷과 가방 등을 빼앗겼던 기억과 놀이터에서 맞았던 피해 상황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A씨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나오는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면서 "때린 사람은 기억 못해도 맞은 사람은 기억한다고, 자다가도 떠올라 깬 정도로 몸이 반응한

다"고 주장했다.

이후 해당 내용에 등장하는 B씨는 "A가 쓴 글에 포함된 당사자라며 "효린은 온갖 언어폭력에 가방, 옷, 신발 등을 하루만 빌려달라고 한 뒤 몇 날 며칠을 입고 다녔다"고 말했다. 이어 "놀이터에서 무리지어 와서 '오늘은 너 누구한테 맞을래?'라고 말하며 두려움에 떨게 했고, 이유없이 폭력을 당해야만 했다"고 썼다.

이후 효린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소속사 측은 "이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방침"이라며 "법률대리인과 논의를 거쳐 조만간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효린

손예진 '사랑의 불시착' 선택한 까닭

현빈과의 열애설 부담감 불구 화려한 캐릭터·스타작가 매력

배우 손예진이 열애설 상대인 현빈과 호흡을 맞추는 부담감에도 11월 방송하는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 캐릭터의 매력과 박지은 작가의 힘을 엮는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인다.

손예진의 드라마 속 캐릭터에서 우선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극중 손예진은 외모면 외모, 실력이면 실력 등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며 부모의 재력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성공을 일군 인물이다. 최근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재벌 상속녀이기도 하지만 자립심과 진취적인 성격으로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인물이라서 차별화를 통한 카리스마의 매력을 드러내 보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작용했다.

이를 통해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와 드라마 '상어', '연애시대' 등에서 보여준 애절한 감성도 더욱 극적으로 표현할 수



손예진

있게 됐다. 극중 패러글라이딩 도중 폭풍에 휩쓸려 북한에 불시착한 뒤 벌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북한군 장교 역 현빈과 펼치는 로맨스, 남과 북이라는 배경이라는 극적 요소의 힘도 출연을 결정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스타작가'로 불리는 박지은 작가의 실력도 힘을 보탤다. 박 작가는 '푸른 바다의 전설' '별에서 온 그대' 등을 통해 여주인공의 매력을 100% 이상을 끌어내는 필력을 과시했다. 이에 손예진과 첫 합작에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전봉준이 된 최무성 존재감 뽐뽐!

'늑두꽃'서 실존인물 열연 호평 전작과 다른 이미지 변신 화제

연기자 최무성이 현재 방송 중인 SBS 금토드라마 '늑두꽃'을 통해 강렬한 인상과 함께 존재감을 남기고 있다. 섬세한 감정 연기 등으로 대표작인 tvN '응답하라 1988' 속 '택이 아빠'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지우는 데도 성공했다.

최무성은 극중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이끈 전봉준을 연기한다. 동학군의 절대적인 지도자인 전봉준을 통해 시대적 상황이 개연성 있게 설명되고 있다는 호평이 잇따르고 있다. 주인공 조정석을 동학군 별동대장으로 키우는 과정으로도 조직의 리더가 겪는 각종 고뇌를 드러낸다.

시청자들은 최무성의 연기를 '늑두꽃'의 관련 포인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시대적 혼란에 휩쓸리는 조정석과 윤시운, 두 주인공 사이에서 무게중심을 잡아나가는 덕분이다. 이는 드라마 시작 전에 나온 우려를 보기 좋게 꺾어 결과이기도 하다. 전작 tvN



최무성

을 이끌어냈다.

2015년 '응답하라 1988'로 대중에 얼굴을 알린 탓에 그는 오랫동안 극중 캐릭터인 '택이 아빠'로 불렸다. 하지만 전봉준으로 새 '인생 캐릭터'를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무성의 탄탄한 연기력의 비결은 오랜 극단 활동이다. 그는 최근까지 극단 신인류를 이끌며 다양한 연극을 무대에 올렸다. 후배 양성에도 특별히 힘을 쏟는다. 연기에 뜻이 있는 배우들을 영입해 경험을 쌓도록 돕는다. 직접 연극을 연출하며 키운 대본 해석력은 출연하는 드라마마다 화제의 캐릭터를 만든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지혜 기자